

다마무시노 즈시(비단벌레 장식 감실)(아스카 시대 국보)

다마무시노 즈시라 불리는 이 작은 감실은 7 세기의 작품으로, 높이는 226.6cm 이고 편백나무와 녹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겉면에는 옷칠이 되어 있습니다. 궁전 부분에는 당초문양이 투각된 동제 금속품이 달려 있고 그 아래에 비단벌레(다마무시)의 날개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.

이 감실은 스이코 천황(554~628년)이 소유했던 것이라고도 전해집니다. 정교한 불교적 장식으로도 유명한데, 정면 문에는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 중 2구가 묘사되어 있고 측면 문에는 좌우 각각 2구씩 총 4구의 보살상이 그려져 있습니다. 또한 아래의 수미좌에는 석가모니의 전생 일화를 나타낸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. 그중 하나는 석가모니의 전생이었던 왕자가 자신의 옷을 나무에 걸치는 장면으로, 이 장면 후에 왕자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주었습니다.